

미디어센터 장비/시설 현황공유 간담회_논의내용정리본

-
- 일시 2021년2월 2일(화) 오전 11시~오후 6시
- 장소 군포시미디어센터 (+온라인중계)
- 사회 윤정록
- 참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 유호동
 대구영상미디어센터 / 이승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이호섭 (/온라인참여)
 군포시미디어센터 / 신준혁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윤정록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 송인규, 허윤희
- 토론 수원미디어센터 / 김은정
-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형 태
11:00~11:30	○ 기조강연 (강사 김성길)	강의
11:30~12:10	○ 군포시미디어센터 시설 견학	
12:10~13:00	○ 점심식사	
13:00~15:00	○ 지역 센터별 장비/시설현황 공유 _6개 센터 : 원주, 대구, 성북, 군포, 노원, 익산 ○ 질의응답	온라인중계
15:00~15:30	휴식	
15:30~17:00	○ 분임토론/ 시설&장비 구축 가이드라인 방향성 설정 - 1분임: 시설 구축 가이드 (익산, 노원, 군포, 원주) - 2분임: 장비 구축 가이드 (익산, 대구, 수원)	분임토론
17:00~17:30	○ 분임별 논의 결과 공유 및 종합토론 - 미디어센터 장비구축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공유 - 노후센터 장비/시설 관리 중요성 공유 - 신규 설립센터 장비/시설 구축시 컨설팅 필요성 공유	종합토론

장비시설현황 간담회 분임토론 _ 시설분임

- 참여 _ 허윤희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_ 유호동 (원주영상미디어센터)
_ 신준혁 (군포시미디어센터)
_ 윤정록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영상스튜디오:::

(각 센터별 시설 내 장비 확인)

- 윤 이상적 스튜디오 세팅은 블랙매직으로 올세팅인듯. 개인견해.
- 유 원주는 미니, 미니프로 사용중.
- 윤 Tricaster는 과정 설명 없이는 일반인들이 바로 사용 불가. 직관적인 블랙매직이 좋을 듯.
- 유 가격면에서도 블랙매직이 적절. 이상적 브랜드라고 생각.
- 원주센터는 앞으로는 세팅시에 안정성/안전성/가성비 등이 좋은 블랙매직으로 갈듯.
- 윤 카메라까지?
- 유 그럴 예정.
- 윤 sony는 너무 고가고, 조리개 콘트롤 등도 엔지니어 없이 불가.
- 신 블랙매직이 좋은 또 한가지 점은 가격대가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
- 소니 모델은 업체 통해 들어오다보니 가격이 다 다름.
- 유 장비컨설팅 들어오는 업체들이 가격대 명시되는 걸 싫어함.
- 신규 미디어센터 생길 때 장비구축시 어떻게 해야 가격 피해 안 볼 수 있는지 고민해야함.
- 조합이나 공동구매 등 방법을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함.
- 윤 업체들이 센터스태프보다 장비에 대해 딱히 전문적이지도 않음.
- 우리 나름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고 이상적인 모델을 고민하면 좋겠음.
- 그럼 우선 스튜디오 용도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음.
- 노원은 영상스튜디오를 녹화, 스트리밍 형태로 운영하고 보통 토크쇼, 온라인강좌를 함.
- 고사양 스위처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음.
- 유 원주에서는 그래서 온라인 강좌는 그때 그때 스위처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함.
- 체험프로그램이 상시화되면 체험강사가 운영하게 하려고 함.
- 윤 강사가 전원 켜고 스위칭 정도 하는 정도인지? (그러함.)
- 허 스튜디오 공간을 시민대여도 하시는지?

유 시민들은 교육을 안 받았으니, 제가 직접 가서 진행을 도움.
차츰 정리되면 어느 정도 나아지긴 하겠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스태프 도움 없이 완벽히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윤 노원도 고민중. 스튜디오 제작 활용 교육이 필요함.

허 익산은 일반인 대여는 없고, 스태프 없이 사용 어려운 구조.
일반 대여시에는 조정실은 사용 안 하고 공간 대여만 하는 정도.
간단하게 사용하는 시스템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음.

윤 저희 노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스위처 바꾸려고 함.

허 익산은 조정실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구조. 그게 좀 어려움.

윤 온라인 중계 할 때 트라이캐스터까지 켜 이유가 없음. 웹캠만으로도 가능.
노원센터에서 스튜디오 용도는 세 가지: 콘텐츠제작(녹화형), 온라인강좌, 체험.

신 군포는 시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행사 녹화 위주로 진행해 왔음.
사전에 교육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당일에는 제가 들어가야함. 체험프로그램은 모집중.

윤 토크쇼 등 녹화도 고민하는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트라이캐스터는 장벽이 높아서.

신 이걸 쓰려면 전문성 있는 시민을 키워내야할 수밖에 없어서 수업 기획중이기는 한데 제약이 많긴 함.

윤 일단 스튜디오는 콘텐츠 제작(준전문가(미디어 활동가 수준)), 온라인 강좌(스튜디오 내부의 시스템),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정리하면 될지?

허 체험프로그램은 포맷이 정해져 있고 참여자들은 주로 아나운서 체험 등의 게스트(출연) 중심이고 장비조작까지 하지는 않음. 만족도는 높은 편.

윤 출연 중심이기 때문에 장비는 체험강사 수준으로 맞추면 된다고 정리.
구동 프로세스 만들어놓고 카메라 위치 정도만 바꾸는 세팅.
시청자 미디어재단 체험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돌아감.

유 미디어센터에서 온라인 강좌라고 하면 스태프가 붙지 않을 수가 없음.

윤 노원도 직원이 붙어서 하게 됨. 아무래도 잘 하고자 하셔서 오시는 거라.

신 강좌의 경우 생각해오신 기술상황들이 있어도 구현은 저희가 하는 거라, 체험 프로그램보다 난도가 있음.

윤 또 웹캠 사용인지 캠코더 사용인지에 따라서도 다름.
웹캠 사용시에는 웹캠만 넣어드리고 간단한 사용법 안내만 드리면 됨.
그런데 캠코더 사용 강좌는 직원들이 직접 구동해야 함. 이 차원에 대한 구분도 필요함.
이 부분들 생각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고려사항인지 고민해보고
그와 관련한 시설구축 표준안을 시트를 만들어서 같이 작성하는 걸로.

유 장비리스트를 뽑는 것보다, 주요 고려사항이나 가이드들을 정리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음.

:::라디오스튜디오:::

- 허 익산은 라디오스튜디오 구축을 예정하고 있음. 다른 센터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
원주는 라디오스튜디오 어떻게 구축하셨는지. 방음이 되는지?
- 유 방음까지는 안 됨. 임시로 외부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거라.
외부 스튜디오이다보니 가벽으로 만들었고, 방음은 애초에 포기하고 진행.
방음이 좋지 않다보니 콘덴서마이크 쓰다가 다이내믹으로 바꿨음.
- 허 익산도 라디오 스튜디오가 조그만 방에 마이크만 한 대 있는 형태.
또 시민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위치이다보니 외부에서 하거나 스튜디오가 확 보이게 하지
않으면 특이점이 없을 것 같아서 2층에 만들려다가 1층에 만들까 고민중.
- 유 저희도 소음 때문에 2층 생각하다가, 시민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층으로 정했음.
- 허 공간이 좁다보니까 구성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임.
- 유 원주는 오디오스튜디오 안에 라디오스튜디오 있던 것 빼고 새로 구성했음.
강의용으로 많이 사용. 온라인 콘텐츠 잘 만드는 방법 이런 강의 준비중.
오디오스튜디오는 시민들이 세팅 가능. mg20 같은 건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 윤 노원은 콘덴서 마이크 사용중.
형태는 고정형이 아니라 스탠드 형. 고정형은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기 어려움.
생긴 게 비싸보여서 그런지 이용자분들이 좋아하심.
보여지는 것들이 의외로 중요하다고 느낌.
고퀄리티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테리어와 장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함.
sm580은 뮤트 기능 있는 것과 없는 모델이 출력이 다름. 참고.
스튜디오에는 보이는라디오가 가능하게 세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함.
요새는 유튜브 중요성이 높아지다보니, 저희도 웹캠 한 대 두었다가 PTZ카메라 넣어서 바로
스트리밍, 녹화 가능하게 할까 고민중.
- 유 저희는 세팅해두었는데, 이용이 많지 않음.
- 허 생방송이라는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 유 그것도 그렇고, 플랫폼 선정이 관건.
일반적으로 토크프로그램보다 음악방송이 많은데, 저작권 때문에 카카오티비로 갔음.
이 플랫폼에서는 진행자가 자기 지인 외에 청취자 유입이 없다보니 루즈함이 느껴지는 듯.
- 윤 프로그램 유형이 달라서 그런 듯.
노원은 토크프로그램이 많음. 오디오는 팟빵에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 허 익산도 그렇게 가볼까 함.
- 윤 그러면 웹캠 한 대는 한계가 있음.
저희도 앞으로 PTZ카메라 설치하고 녹화는 OBS로 하려고 함.
오디오는 방음만 잘 되면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유 스튜디오를 유리 형식으로 구축하실 거면 무조건 3중은 하셔야 함.

윤 라디오스튜디오에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은 안 하시는지?

유/허 없음.

윤 라디오스튜디오 사용용도는 네 가지로 구분: 녹음, 보이는라디오, 체험, 공개방송.
시설별로 논의할 카테고리들을 정리해보면 좋을 듯.
이용자 활용의 수준이랄지, 스태프 결합도랄지.
스태프들이 기술지원해주는 수준에 따라 이용정도를 구분해볼 수 있음.

허 이 폼에 맞춰 이용료도 넣어두면 좋을 것 같음.

윤 스튜디오 공간만 쓴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용료는 똑같이 받음.

허 익산은 장비 사용 안 하고 공간만 쓸 때랑 오퍼레이팅 지원시의 금액이 다름.

유 저희는 오퍼레이터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추가비용 받음.

신 오퍼레이팅은 따로 비용이 든다고 고지는 하지만 금액을 얼마로 산정해야할지 애매함.

윤 미디어센터가 상업적 스튜디오가 아닌데, 오퍼레이팅을 직원이 하는 게 맞는지 고민되기는 함. 저희는 오퍼레이팅 지원 절대 안 하고, 필요하시면 교육 받으시라고 함. 상업스튜디오를 가시든지. 그런데 대안이 없는 도시에는 또 다를 것 같음.
저희는 해결방안으로 시민중계단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오퍼레이팅 활동비를 지급하고
저희는 공간만 대관하는 식으로 하려고 정리하고 있음.
이렇게 활동가들과 이용자의 링크를 만들어내는 게 센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

유 지역에는 생각보다 개인작업하는 분들이 많음.
그분들이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시민단체라고 할지라도 다 사업자가 있으니까. 애매할 때가 많음.

허 공간대관도 비영리-영리 금액이 다르던데. 다들 영리목적 대여 하시는지?

유 원주는 장비대여는 영리 이용 절대 안 됨. 공간만.

신 군포는 대관시 영리목적 대관이 안 되게 돼 있음.
특수상황 등이 가끔 생겨서 운영규정 마련이 필요함.

윤 서울에는 상업스튜디오 등 대안이 있다보니, 저희는 100% 비영리목적만 가능.

유 애매한 상황 있음.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요청이 온다든가.
시에서 공문을 보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기는 함.

윤 노원은 비영리 목적, 공동체미디어 활동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대관 가능함.

*미디어센터 시설구축표준안 시트 제작 (시트보기)

공간	센터별 운영현황	센터별 시설현황	주요용도	스테프 기술지원 수준	주요이용자 및 이용형태	비고	필요장비	추천모델
영상스튜디오	노원 : 녹화(토크쇼), 스트리밍(온라인강좌) 원주 : 촬영, 온라인강좌 익산 : 촬영, 조정실은 직관적 사용가능 수준 군포 : 행사중계(녹화), 촬영		1. 콘텐츠 제작(녹화) 2. 온라인강좌(w.촬영) 2. 온라인강좌(w.캠코더) 3. 촬영	스테프 80% 이용자 20% 스테프 30% 이용자 70% 스테프 100% 스테프 20%, 촬영강사 80%			스위처	ATEM Television Studio Pro 4K
라디오스튜디오	노원 : 라디오콘텐츠(보이는라디오포함), 토크쇼 원주 : 라디오 콘텐츠(보이는 라디오) / 팟캐스트 녹음 / 촬영 익산 : 팟캐스트 녹음 군포 : 보이는 라디오 / 팟캐스트 / 믹싱작업 / 촬영		1. 오디오녹음 2. 보이는라디오 녹화 3. 라디오촬영 4. 외부 공개방송(장비)	스테프 0%, 이용자 100% (지향)				
1인미디어실	노원 : 원주 : 익산 : 군포 :					활용시 가변성 필요 /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교육실	노원 : 원주 : 익산 : 군포 :						PC	
중계장비	노원 : 원주 : 익산 : 군포 :							

:::1인미디어실:::

허 익산은 1인미디어실 없음.

요구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편집실 사용이 거의 없어서 거기를 1인미디어실로 바꾸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

윤 노원도 공간은 있지만 사용이 많지는 않음. 영리사용이 제한되어있다보니.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용도 많은듯. 개인강사들이 온라인강좌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있음.

허 1인미디어실은 영리목적 사용이 많을 듯해서 미디어센터에 맞는 건지 모르겠음.

유 기준이 어떨냐에 따라 다름. 수익창출 시점부터 사용금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도 함.

원주는 수익전환 시점부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음.

신 애매하기는 함. 하나씩 따지고 들기가 어려우니.

군포도 영리목적은 안 된다고 정해져있기는 함.

광고수주 여부도 중요함. 저희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윤 미디어센터들에서 이런 기준이 없는 곳들이 많을 것.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기준들도 수합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음. 이용료 포함.

1인미디어실은 500만원이면 구축 가능. 그런데 그 필요에 대해 의문이 있음.

소규모 영상스튜디오가 낫지 않나 싶기도 함.

유 1인미디어실은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춘 시설이기는 해서 가변성이 필요함.

윤 노원은 방음까지 하고 에어컨도 넣어놔서 아예 시설자체가 고정돼 있는 게 조금 아쉬움.

유 원주는 기존 공간에 세팅만 해놓았음. 1인미디어실이라고 딱히 명명하지 않았음.

:::교육실:::

윤 PC는 윈도우 업데이트 관련 상황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를 듯.

지금 군포센터에 있는 피씨는 200만원 대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 그런데 훨씬 높은 가격에 들어왔음.

유 계약문제는 확실히 어떻게 해야함. 조달구매하는 순간 가격대가 너무.
윤 장비중심이 아니라 업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얘기 나누면 좋을지 논의하면서 정리.
시설중심의 교육과정 개설 등을 교육담당자들과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음.

장비시설현황 간담회 분임토론 _ 장비분임

○참여 _ 이승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_ 김은정 (수원미디어센터)

_ 송인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이 미디어센터가 보유가능한 장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개인적으로 시네마틱 장비까지 갖추는 것은 오버스펙이라고 판단.

저예산, 독립영화의 경우에도 전문렌탈샵이나 소속학교 장비 이용이 대부분.

따라서 신규센터가 저예산 영화제작 장비까지 커버하는 것은 비효율적.

송 동의.

김 시네마 장비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레드, 알렉사 정도까지?

이 Ursa mini 같은 블랙매직 엔트리급 혹은 캐논 C300, 소니 FS7, FX6 등이 미디어센터가 보유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 생각함.

사실 바디보다 렌즈가 더 중요한데 시네마렌즈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정작 바디를 구매 하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그래서 미디어센터에서 엔트리급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오버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며, 시민영상 장비, 교육용 장비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

김 시민영상 장비나 교육용 장비가 비슷한 수준일 듯함.

영진위에서 받은 장비 활용도는 어떤지.

이 매우 높은 편. FS7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되는 수준.

독립영화 제작 수요가 많은 지역의 특징도 반영.

송 렌즈 같은 경우 사용하다가 깨지면 물어내야 해요, 라고 하면 안 빌려감.

그럼에도 센터에서는 시네마 장비 중 가장 싼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싶음.

대학생이나 영화 만들고 싶은 친구들,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정도.

- 김 센터 기능이나 컨셉에 따라 장비는 달라짐.
일반 시민 대상 센터일 경우 시네마 장비 살 돈이면 싸고 보편적인 장비를 더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음.
시청자센터가 가장 부러운 점은 같은 장비를 3-40개 보유하고 있다는 것.
교육, 실습할 때 같은 장비가 여럿이면 인당 배포가 가능한데 3-4명이 한 대를 나눠쓰는 상황이 허다함.
시네마용 장비가 굳이 필요없다 하면,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하다 생각함.
또, 장비별 내구연수 조사해봐야 하지 않나 싶음. 렌즈 8년, 데스크탑 5년... 등등처럼.
공용으로 쓰다보니 최소 두 배 빨리 떨어진다고 느껴지는데, 오늘 논의에서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만 잡았으면 좋겠음.
- 이 시네마 장비를 보유하더라도 알렉사나 이런 고가장비는 비현실적.
소니 A7S3, A1 등 하이엔드 미러리스와 FX6 등 엔트리용 시네마틱 캠코더의 가격과 성능이 크게 차이하지 않음. 이 정도가 미디어센터가 구축가능한 최상위 지점이 아닐까 함.
수원센터에서 말씀하신 장비의 대수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크게 동감.
- 김 소니군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마이크 포함 안되어 있기도 함. 마이크까지 포함되어야 함.
- 송 익산은 장비 살 때 교육팀에 맞춰서 구입함. 교육팀에서 요구하면 대체로 승인하는 편.
일례로 X70 캠코더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아이패드를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액세서리를 고급형으로 구매 고려중.
DSLR이나 가벼운 기기는 음향의 문제가 커서, 마이크를 추가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해외직구하는 방안을 검토중. 싸고 좋은 액세서리를 다양하고 많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 이 익산센터 의견의 핵심은 기존 캠코더 중심운영에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포터블 기기로 운영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함.
대구의 경우도 캠코더보다는 미러리스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한 상황.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영상미 구현을 위해 미러리스 선호.
하이엔드급 미러리스, 스마트폰용 액세서리 세트, 이런 식으로 장비의 사용이 점점 양극화되는 느낌.
예컨대, 삼각대의 경우도 완전 비싼 전문가용 아니면 가볍고 저렴한 제품 이렇게만 대여되는 느낌. 중간지점이 점점 사라진달까.
- 송 삼각대도 비싼 건 무겁다고 가벼운 거 무료인 거 빌려가는 경우 많음.
놓치지 말 것은 그래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

:::녹음장비:::

- 송 스튜디오. 내용이 중요하고 장비 구성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됨.

성북처럼 패널 8개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호섭 선생님이 혼자 다 마련하신 거고, 사실상 그 분만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할 수 없음.

스튜디오에 카메라 3대인 곳이 많지 않고, 다룰 스태프도 적고.

5-6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함.

매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마련하는 것도 중요.

스태프가 한 명 붙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양이 어마어마 함.

이 효율성 극대화 필요. 가령 스튜디오가 블랙매직 제품군으로 구성이 된다면 대여장비의 바디와 렌즈도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블랙매직 장비나, 파나소닉 같은 마이크로포써드 라인으로 전략적으로 맞춰서 구성할 수도 있음.

더불어 센터의 특성에 맞춰 장비구축이 필요. 시민대상 기초교육의 수요가 높은 곳은 조작이 간편한 기초장비 위주로, 전문제작단 수요가 높은 센터라면 하이엔드 미러리스가 추가되는 식으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선택가능하도록 제안해줄 수 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스마트폰용 장비, 웹캠, 4K캠코더, 미러리스 등이 기본세트라면 센터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시되면 좋겠음.

김 바디-액세서리 호환이 안 되는 세트가 있다든지 하는 일도 왕왕 있어서 세트 형태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무엇보다 보유수량은 무조건 많아야 함.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부분도 있고, 최소 인당 하나씩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기본적으로 20 세트는 있어야 10대는 대여용 나머지 10대는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

예산이 매년 3천만원도 안 되다보니 보편화된 장비를 수량확보하는 게 최우선.

송 기본 사양은 월로 갈 것이냐도 중요.

미러리스 or 캠코더 or 아이패드.

김 미러리스 또는 준하이엔드급 몇 세트 정도 맞추고, 나머지 군들은 캠 기반 or 모바일 기기 등 간편장비를 바탕에 두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세팅하면 좋을 듯. 포터블 장비 잘 나오니까.

이 스마트폰/아이패드 등 포터블 기기는 대량으로 사기 좀 어려운 게, 너무 빨리 바뀜.

액세서리 리그, 삼각대, 짐벌 정도.

김 동의. 관리도 어렵고 너무 여러 사람이 쓰니까 빨리 소비됨.

액세서리 위주로 사는 게 좋은 듯함.

포터블-캠-준하이-하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다른 센터 보면 드론교육도 있고 한데 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함.

이 뒷감당 너무 힘들 듯... AR, VR 이런 말도 나오는데 쉽지 않음.

:::조명장비:::

LED가 답. 뎀머기능, 색온도 조절되는 LED 스팟, 평판, 플렉서블 LED, 젼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최선. 어퓨처, 포맥스 혹은 가성비 좋은 고독스 등의 LED 라인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 텅스텐 및 할로겐, HMI는 실제활용도도 낮을 뿐 아니라 대여가 잦은 센터 특성 상 관리와 사용, 안전문제 등 관리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음

:::기타장비:::

어떤 장비를 구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구비할 필요가 없는 장비를 제외하는 것도 중요.

소형 슬라이더, 짐벌, 케이지나 리그 등 소형 그립 장비 정도는 구비 필요.

17인치 모니터, 대형 슬라이더, 달리, 컬러미터, 노출계, 스테디캠 등은 대여수요가 거의 없어 필수구비항목에서 제외하여도 무방.

:::장비 리스트:::

위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장비군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세부장비 리스트는 추후 업데이트.

○ 종합논의

- 김 정책적 차원 논의 필요. TF구성 등.
소니, 캐논 코리아 등 총판 업체와도 미디어센터 차원에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미협 또는 TF 차원에서 같이 단가 내려서 구매할 수 있을듯. 공동행동 구축 필요.
- 윤 쉬운 사용, 저렴, 고사양 등 블랙매직이 추구하는 바가 미디어센터와 잘 맞아 떨어짐.
장비구축 표준모델안을 수립하여 공동 구매를 타진해볼 수 있을 듯. 전미협 통해서.
- 김 신규센터 스튜디오 구축시 이렇게 협의가능한 업체가 있을 경우 알려주면 좋을 듯.
- 윤 동의. 어도비는 이제 나라장터 가면 1+1 되게 많음. TF 구성은 모두 동의?
- 모두 동의.
- 윤 TF명은 '미디어센터 장비시설 표준모델 수립을 위한 미디어센터 태스크포스' 정도로.
- 유 줄여서 미장센...!
- 윤 4월 말 또는 5월 초쯤 워크숍 형태로 추가 논의 진행하면 좋겠음. 장소는.
- 송 익산센터 가능.